

# BITGOEUL MUSIC FESTIVAL



‘떼게레’가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소뉴’가 노래하는 모습.

〈소뉴 제공〉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  
국악·아프리카·라틴·일렉트로닉 ‘크로스오버’  
광주문화재단 8~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 경계를 넘는 음악...빛고을 수놓는 월드 뮤직

전세계의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담아내는 축제라 빛고을의 여름밤을 수놓는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빛고을음악페스티벌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연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국가, 인종 등 둘 이상의 범주를 섞어 내는 ‘크로스오버 뮤직’이 주가 된다. 국악부터 아프리카, 라틴, 일렉트로닉 등 다채로운 음악 요소들이 한 무대에서 뒤섞일 예정이다. 재단은 2020년부터 매해 여름마다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라틴음악을 시작으로 유럽음악(2021년), 북미음악(2022년) 등을 선보여 왔다.

총감독은 4년째 장용석이 선임됐으며 프로듀서로 정현준, 진행은 DJ 문형식이 맡았다. 먼저 8일에는 월드뮤직그룹 ‘토크토리’가 플라멩코와 국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세계 속의 민요’를 추구하는 토크토리는 세계음악 속 민요의 가치를 탐구하는 음악 집단이다. 플라멩코의 음악적 기교를 의미하는 ‘토케(Toque)’와 한국적 음악어법을 뜻하는 ‘토리(Tori)’를 접목시킨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옴니퍼펙트’, ‘파복네’ 등 10여 곡을 감상할 수 있다. 기타리스트 민선재와 최운영의 한국음악, 플라멩코 무용수로 활약 중인 앤 캐서린 라 코브라 등의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다. 이어 9일에는 그룹 ‘떼게레’가 서아프리카 음악

을 연주한다. ‘떼게레’는 서아프리카 말링케 민족 언어로 ‘손뼉 치다’라는 뜻으로, 함께 박수치며 감상하는 흥겨운 무대를 상정한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쟈메연주자, 김창국, 백진희 등이 아프리카의 원초적 리듬을 풀어내고, 특히 작년 6월 발매된 ‘ON Y VA!’ 앨범에 수록된 자작곡 ‘바니데’, ‘투마니세라’, ‘도니도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펼칠 예정이다. 오는 10일 ‘소뉴’의 무대도 눈길을 끈다. 라틴어로 ‘숙명’을 뜻하는 ‘Fatum’에서 유래한 포르투갈 민중음악 파두는 향수와 애수 어린 정서가 담겨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돌피 폰씨 등의 노래와 직접 작곡한 자작곡까지 11곡의 파두 음악을 선보인다는 계획.

한편 11일에는 ‘이재원 월드재즈유닛’이 ‘아프로 쿠반에서 재즈까지’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모로코, 이스라엘, 쿠바 등 다국적 사운드를 결합하는 한편 라틴음악을 주제로 아프로 쿠반, 스윙의 명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드럼에 이재원, 피아노에 주디신, 색소폰에 유명한, 베이스에 김동연 등이 나선다. 끝으로 12일에는 그룹 ‘디에보’가 재즈, 일렉트로닉, 국악이 섞인 퓨전음악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퓨전, 다르고 아름다운’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은 일렉트로닉과 국악, 아프리카 전통음악의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름이 갈릴 때’와 ‘다르고 아름다운’, ‘모놀로지’ 등 10여 곡이 올려 퍼질 예정이다.

특히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아마디 발라니가 발라폰(나무 타악기), 쟈메 등을 직접 연주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베이스에 김성수, 보컬에 시나, 피아노에 원영조, 드럼에 오종대, 대금에 박송이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광주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며 광주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입장료 전석 5000원.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별들 사이 혜성...내 별은 어디 있을까



‘별들 사이 혜성’

광주 송정작은미술관 16일까지 오혜성 초대전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과 그 안의 혜성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로 표현하는 작가가 있다. 오혜성 작가가 그 주인공. 혜성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한 꼬리를 수반하는 태양계 내의 천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뛰어나게 슬기로움”을 뜻하기도 한다. 한자는 다르지만 혜성이라는 말에는 독특한, 뛰어난 등의 의미가 투영돼 있다. 오혜성 작가의 초대전이 광주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별들 사이혜성’. 소촌아트팩토리의 기획전시 공간아트 플러스 65번째 전시로 기획됐으며, 주제가 상징하듯 무수히 많은 혜성이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전시장에서 볼 수는 가장 강력한 색으로 다가온다. 얼핏 슬픔과 우울의 그림자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저자는 “파란색은 우울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색

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한없이 젊고 생명력이 넘치는 색”이라고 말한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울한 분위기는 저만치 달아난다. 오히려 우주의 신비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대형 설치작품 ‘Flow’는 바람을 이용해 물이나 우주, 혜성의 꼬리와 같은 어떤 것의 흐름을 보여준다. 직접 작품을 봐야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직접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미술평론가 김기원은 “오혜성 작가는 작품의 빛으로 반사되는 빛을 통해 작품을 보는 모두가 가려 버리거나 가려진 아름다운 ‘나’의 빛을 찾기를 소원한다”며 “어두운 밤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혜성을 발견한 찰나가 남긴 긴 여운처럼, 오혜성 작가가 밝히고 있는 별과 우주를 마주하며 여전히 반짝이고 있던 자신의 별을 발견하기를, 우리의 우주에서 함께 유희하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목관·금관 앙상블 ‘오늘은 클래식’

광주시향 17일 공연마루...영화 OST 등 친숙한 작품 무대에

금관의 왕자 하울과 소피의 모험을 담은 곡 ‘인생의 회전목마’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로 인기를 끌었다. 클래식 음악은 무겁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으나, 이 작품은 젊은 층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연주회가 열리면 공연장에 관객이 몰린다. 광주에도 대중이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성원)은 오는 17일(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GSO 2023 광주상설공연 ‘오늘은 클래식’을 연다. 이번 공연은 G.S.O(Gwangju Symphony Orchestra)를 표방하며, ‘목관 앙상블’과 ‘금관 앙상블’이 주를 이루 관악의 풍부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목관 앙상블 무대에서는 앞서 언급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생의 회전목마’가 연주된다. 히사시 조의 애니메이션 OST를 색다른 음색의 목관악기를 통해 들려준다. 또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일부와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와 로드리게스의 탱고 명곡으로 알려진 ‘라 콤파르시타’, 요한 스킨

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목관 앙상블은 플루트(정은지 등)와 오보에(김영주 등), 클라리넷(주민혁 등), 바순(이우광 등) 및 금관악기 호른(이정형)이 화음을 이룰 예정이다. 금관 앙상블도 기대를 모은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황무지를 바라보며 스칼렛이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타라의 테마’는 5060 관객들이 감상하기에도 좋다. 또 ‘댄싱 퀸’ 등으로 알려진 ‘아바(ABBA) 컬렉션’, ‘베스트 오브 클래식’, 요한 슈트라우스의 ‘비엔나 행진곡’ 등 다양한 테마의 곡들을 마련했다. 호른(김호성 등), 트럼펫(기경일 등), 트럼본(서용일 등), 베이스트럼본(김용환), 튜바(심재영) 및 타악기(이현동)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전 세대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익숙한 음악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펼쳐내는 앙상블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

## ‘국악이 좋다-국악의 향연...내 정은 청산, 님의 정은 녹수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5일 국악원 진악당 무료 관람

“푸른 산은 나의 뜻이요, 푸른 시냇물은 님의 정이니. 푸른 시냇물은 흘러흘러 가지만 푸른 산은 녹수처럼 변하겠는가(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 애수 어린 마음을 자연에 빗댄 황진이의 연정가는 절절한 울림이 있다. 국악에는 우리의 ‘한(恨)의 정서’를 담아내는 묘미가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 이하 국악원)은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국악의 향연, 내 정은 청산 님의 정은 녹수’를 오는 5일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공연의 막은 ‘한강특류 거문고 산조’에 의한 합주로 김선제가 연다. 고(故) 한강특류 명인이 만들어 낸 ‘한강특류 거문고’ 유파는 거문고산조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음악적 기교와 화려한 현의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가야금병창 단가 ‘편시춘(片時春)’이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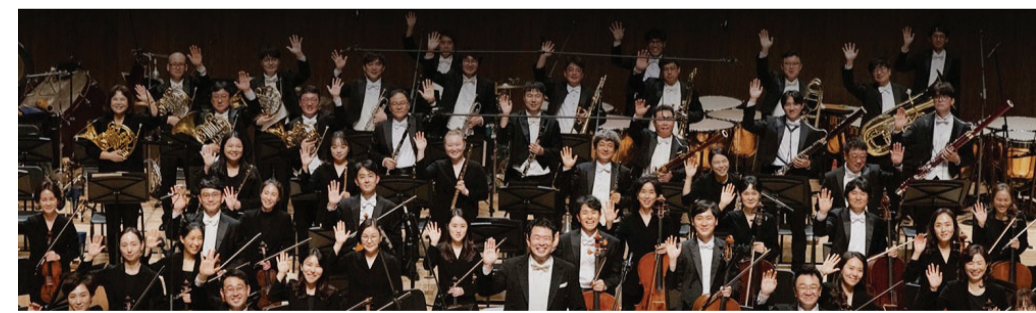


국악 연주자들이 합주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진다. 늙어가는 인생사가 마치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기에 슬로 시름을 떨치고 봄날의 여흥이 나와 즐겨 보자는 권주가의 성격을 지닌다. 물가에서 목욕하던 심봉사가 아름다운 동해유수를 보며 떠올리는 ‘심정가 중 심봉사 좋아라고’는 흥취와 다양한 의성어, 추임새가 특징이다. 가야금병창에 나승희, 장단에 김주원. 대금중주 ‘도드리’는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전래된 궁중 연례악이자 관악 합주곡 ‘보허자’의 선율을

변주한 것으로 풍부한 대금의 선율이 인상적이다. 한편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심봉사의 여정을 담은 판소리 ‘심정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박신영이 소리를 맡고 김주원이 북을 맡아 신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무용 ‘부채춤’, 남도민요 ‘남도 뱃노래’, 연희 ‘삼도설장구’ 등의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관람료 무료. 예매는 국악원 홈페이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조운성 교수 조선대 미술체육대학장 취임

조운성(사진) 조선대 미술체육대학교수가 1일 미술체육대학장에 취임했다. 신임 조운성 미술체육대학장은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총괄책임교수, 금호문화재단 이사, 장원문화재단 이사, 한국예술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남도립미술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신임 학장은 “조선대가 지향하는 글로벌 대

학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미술체육대학은 가장 지역사회 현장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문화된 대학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